

빈집 대신 창작예술촌·공유 주택·문화거리...

순천 원도심, 북적북적 '활기'

순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향동과 중앙동, 저전동, 장전동 등이 10년 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점차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향동·중앙동(1단계), 저전동(2단계), 장전동(2단계), 조곡동·역세권(3단계)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순천에서는 1960년대부터 중앙동을 중심으로 원도심이 형성됐고, 1980년대 이후에는 연향동과 조례동 등 신시가지가 개발됐다. 2000년대 들어 이들 원도심은 인구감소와 상권쇠퇴를 겪으며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순천시는 원도심 4개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1092억원을 들여 3단계에 걸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첫 삽을 뜬 향동·중앙동에서는 국비 60억원과 시비 140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창작예술촌을 조성하는 등 '근린재생형' 사업을 지난 2018년까지 진행했다. 2018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저전동과 장전동에서 각각 187억원과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이 추진됐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비 340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시작한 뒤 올해 마무리한다.

순천부습성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닌 향동·중앙동에서는 부분별 창작예술촌 3곳과 지상 3

향동·중앙동·저전동·장전동 등 순천역·터미널 주변 상권 쇠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도시재생 주민 교류 거점·창업공간 조성 상권 매출 늘고 유동인구 증가 14일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층 규모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거리 등이 조성됐다. 5년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벌인 결과 36곳의 민간 창업이 이뤄지고 고용인원은 3505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육천 주변에는 '육리단길'이라는 명소가 생겨났고, 빈집 21곳을 정비하기도 했다.

시장 관사가 있었던 저전동 일대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원마을과 '비타민마을'로 불리는 주민 교류 거점(커뮤니티) 등이 조성됐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빈집은 한옥과 정원, 책의 매력을 담은 '마을호텔 어여와' (3개 동)와 청년 공유 주거 공간 '새로와' (4개 동)로 거듭났다. 빈 건물 6곳을 새로 단장한 '창업특화거리'와 '저전나눔터' '저전마실터' 등 주민 생활공간도 마련했다. 5년간 도시

재생을 벌인 저전동 상권은 이전보다 매출액이 8% 늘었고, 상권 유동인구는 103% 증가했다.

시청사와 버스터미널을 품은 장전동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순천시는 터미널 인근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장기체류형 숙소, 특화 먹거리, 창업 지원·문화예술 복합 공간 등을 조성해왔다. 청년 창업을 위한 공유주방과 동아리실,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지상 3층 규모 '몽미락센터'가 대표적인 도시재생 시설이다. 농협 창고를 활용한 '장전파랑새창고'는 각종 전시와 교육, 회의 장소로 쓰이고 있으며, 옛 카페터 건물은 공연장인 '장전노랑극장'으로 탈바꿈했다. 9곳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한 장전동 상권 매출은 64% 늘었고, 유동인구는 52% 증가했다.

순천역 주변 조곡동 일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동선의 생태환경을 연계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배를 타고 국가정원에 닿을 수 있는 '동천테라스'와 '생태비즈니스센터', '어울림복지센터', '수산물상생공간' 등이 들어섰다. 쇠퇴하던 순천역 주변 상권은 매출이 8% 늘고, 유동인구가 93% 급증했다.



순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글로벌 웹툰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웹툰스퀘어'와 '생활 디자인 거리' '시민광장' 등으로 꾸밀 방침이다.

순천의 대표 원도심 향동·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순천부습성 남문터광장' 전경. (순천시 제공)

도시재생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정원 콘텐츠 타운 조성 방안' 기초 강연과 중소도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디오션리조트 옆 150억 투입 '아쿠아 가든' 만든다

용 달은 '아로와나' 등 전시

여수시 소호동에 11월께 대규모의 '아쿠아 가든'이 들어선다.

여수시는 최근 디오션호텔에서 HJ디오션리조트(주), ㈜아쿠아가든과 연면적 5000㎡(1500평), 3층 규모의 아쿠아가든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쿠아 가든'은 수중 생태계를 실내에 조성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현재 수도권에만 존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성 예정인 가든 내 대규모 수조는 자연스러운 수중생태계를 생생하게 재현해 '아쿠아스케이프(Aquascape)' 혹은 '수경 예술'이라 불리며 시각적 예술성을 지녔다.

자연적인 유목이나 수석을 주재료로 물속 풍경을 표현한 공간에는 용을 달은 물고기 '아로와나', 담수 가오리인 '블랙다이아몬드'와 같은 관상어들이 가득 채워져 신비로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 가든 카페와 육지거북, 수달, 파충류 등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신비 동물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연인·가족 등 다양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150억원 규모 여수 아쿠아 가든 조감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수의 새 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선 8기는 여수의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한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여수 서쪽에 조성되는 대규모 아쿠아가든은 소호동과 화양면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우리시 이미지에 걸맞은 바다 수중동물을 활용한 아쿠아가든은 단순 시설을 넘어 여수만 르네상스 구현의 발판으로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만에 무인항공 영농단지 첫 삽

2026년까지 128억 투입...4만평 규모 25개 기업 입주 가능

고흥만에 무인항공 영농기술을 특화한 농공단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조성된다.

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읍 고소리 항공센터 앞에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에는 고흥의 미래 전략 산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다.

고흥군은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설계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마치고 지난해 4월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했다.

고흥읍 고소리 고흥만 일원에 조성되는 특화농공단지는 13만7044㎡(약 4만평)의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특화농공단지에는 드론 제조, 연구 등 4개 업종 25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고흥군은 전국 최대의 비행시험 구역(지름 22km)과 고흥항공센터, 드론센터, 국가중합비행성능 시험장 등 최적의 드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에는 223억원 규모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 공모사업', 이달에는 143억원 규모 '미래비행체(AAV) 실증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항공 기반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항공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드론의 연구·제조부터 실증까지 드론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고용 창출은 1500여 명 규모로, 직·간접 경제 유발효과는 465억원에 달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착공식에서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날개가 될 미래 전략사업으로,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드론 중심도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견실한 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과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신임해양경찰 실습함 '바다로함' 원양항해

한-필 수교 75주년 양국 우호 협력 강화...100여명 17일간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바다로함' (4200t급)이 신임경찰들을 태우고 17일간 원양항해에 나섰다.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바다로함은 함은 지난 11일 여수 신항에서 출항해 필리핀 마닐라를 경유하는 일정으로 원양항해를 실시한다.

바다로함은 배수톤수 4200t급의 실습함으로 길이 120m, 높이 18m, 너비 16m, 최대속력 18

knot(38km/h)로 1회 항해에 7371마일(1만1862km)을 항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와이까지 왕복 운항할 수 있는 거리다.

바다로함 원양항해는 한-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양국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단장(총경 김환경)을 포함해 신임 경찰(경위·순경) 44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다.

신임 경찰은 실제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대양 항해능력 배양과 각종 상황에 대응 가능한 해양경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교육원은 설명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4박 5일간 정박하는 동안 필리핀 해양경찰과 검문검색, 인명구조, 선박 화재 등 복합상황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해양오염, 수색구조,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등 상호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복내중, 독일 학생들과 글로벌 수업

자율영어동아리반-독 김나지움 학생들 디지털 공동수업



보성복내중학교 학생들이 독일의 김나지움 학생들과 줌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 (보성복내중 제공)

보성의 한 중학교가 해외의 학교와 영상 수업을 하는 등 글로벌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성복내중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독일의 김나지움 학생들과 줌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매년 2회씩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미래교육실현 방안으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는 보성복내중 자율영어 동아리반 학생들과 독일에서 선택과목과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메를렌부어크포어머른주의 카롤리네 김나지움과 베를린의 마리쿠리 김나지움 학생들이 지난 5월27일부터 6월 4일까지 3차에 걸쳐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공간의 제약 없이 공동수업을 전개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복내중이 기숙형 중학교라는 특성을 살리고 시차를 고려해 밤 9시부터 50분간 진행했다. 수업에서 독일 학생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복내중 학생들은 영어로 각자의 소개와 학교생활과 한국 문화를 발표하며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수를 더해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으로 더 많아져,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DM(메시지)을 이용해 수시로 만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이번 프로젝트 수업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한 학생은 "3년째 참여하고 있어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후배들과 즐겁게 준비하고 발표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연습에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노력했고, 특히 우리 문화를 소개하면서 뿌듯함도 느꼈다"고 밝혔다.

이번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든 또 다른 학생은 "독일 학생들과 직접 대화한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독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의욕만족이 되지 않아 영어공부를 더 공부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라고 말했다.

문경에 보성복내중 교장은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기간에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고, 자율동아리활동의 결과물로 화상을 통한 대화와 발표는 서로 간의 문화 다양성을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도성을 학습할 수 있었으며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어 지속해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 원도심 거점 '청춘스케치 마을' 발대

광양시가 최근 지역 청년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기업 '네모'에서 추진하는 '청춘스케치 마을'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춘스케치 마을은 광양읍 구도심을 거점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로컬 디자이너 여성, 지역 상권 살리기 '마주데이' 행사, 청년마을 네트워크 파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발대식은 청춘스케치마을 연건계획 및 프로그램 소개, 업무협약, 포럼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1개 청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지역 청년대표들을 초청

해 청년포럼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청년기업 '네모'의 백승훈 대표는 "광양시는 수도권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만큼 다른 지자체의 청년마을과는 차별화된 광양형 청년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의 대학교, 기업, 청년단체들과 연계해 지역민들과 상생하고 청년들이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청년들이 순수하고 열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는 도전을 할 것"을 주문하며 "쥬네오가 추진하는 청춘스케치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